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모범생 '김주형' VS 한방의 '필'… KIA 1루 행복한 고민

KIA 시즌 베스트 라인업

필, 한화와 연습경기서 만루포…강한울, 김선빈과 유격수 각축

'호랑이 군단'의 2014시즌 큰 틀이 그려졌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를 가졌다. 오는 29일 개막에 앞서 치러진 마지막 리허설이었다.

경기에 앞서 KIA 선동열 감독은 "2군에 선수들을 몇 명 내려보냈다. 시범경기 성적은 물론 스프링캠프에서의 연습경기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가렸다"며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추고 포수는 베테랑(김상훈·차일목)으로 구성했다. 일단 삼성과의 개막전은 10명의 투수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KIA는 이날 연습경기에서 송은범과 차일목을 배터리로 구성하고 내야에는 1루수 필, 2루수 안치홍, 3루수 김주형, 유격수 김선빈을 세웠다. 외야는 좌익수 신종길, 중견수 이대형, 우익수 이종환으로 채웠다. 나지완은 지명타자 겸 4번 타자로 투입됐다.

이대형을 톱타자로 김선빈과 테이블 세터진이 구성됐고, 신종길·나지완·김주형이 클린업트리오가 됐다. 외국인 선수 필은 6번에 배치됐다.

KIA의 베스트 라인업에는 이범호와 김주찬이 빠진 구상이다. 두 선수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스타팅 멤버에서 빠졌지만 김주찬은 5회 1사에서 대타로 나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부상 변수 없는 '생각대로 라인업'을 짠다면 양현종-차일목의 배터리에 1루수 김주형, 2루수 안치홍, 3루수 이범호, 유격수 김선빈, 좌익수 김주찬, 중견수 이대형, 우익수 신종길, 지명타자 나지완의 조합이 완성된다.

고민이 남은 자리는 1루수와 유격수다.

1루 자리는 김주형과 필의 각축전이다. 현재 페이스를 생각한다면 선수들 사이에서 "김주형이 우리 팀의 외국인타자"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김주형이 좋다. 시범경기를 통해 수비에서도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김주형의 기세가 등등하다.

하지만 경쟁에서 한발 밀려있던 필이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마침내 장타를 터트리며 점수를 땄다. 필은 이날 9회 한화 송창식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만루포를 터트렸다. KIA 입단 후 첫 홈런이다. 필의 한방에 1루 구성을 놓고 KIA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일단 외국인 투수 홀튼이 개막전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 김주형이 먼저 1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유격수도 혼돈의 자리다. 신인 강한울의 바람이 거세면서 경험과 패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유격수 자리는 김선빈이 굳게 지키던 영역. 경험의 김선빈이냐 겁없는 신인 강한울이냐의 선택이 흥미롭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처럼 날아 벌처럼~

미국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의 가드 러셀 웨스트브룩(왼쪽)이 25일 텍사스 에어라인 센터에서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무사고 기원제' 내일로

KIA 타이거즈가 야간 적응훈련을 위해 2014시즌 무사고 및 우승 기원제를 28일로 연기했다.

KIA는 지난 25일 예정됐던 NC와의 야간 연습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됨에 따라 27일 야간 적응 훈련을 갖기로 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탓에 훈련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무사고 및 우승기원제는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KIA는 이날 새 홈 구장인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무사고와 올 시즌 선전을 기원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년만의 귀환

임창용, 삼성과 5억에 계약

사이드암 임창용(38)이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 복귀했다.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된 임창용은 26일 오후 삼성 2군 훈련장 경산볼파크에서 연봉 5억원에 입단 계약을 했다.

플러스 옵션이 있지만 양측 합의하에 금액과 조건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2007년 11월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하며 삼성을 떠난 임창용은 6시즌을 일본과 미국에서 뛰고 삼성으로 돌아왔다. 복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입단 협상도 진통을 겪었다.

임창용은 이날 오후 1시께 경산볼파크에 도착해 송삼봉 삼성 단장과 4시간 30분여 이야기를 나눈 후, 계약서에 사인했다.

컵스는 공식 발표 전인 24일(한국시간) 임창용에게 방출 사실을 미리 알렸고, 23일 마이너리그행 통보를 받고 구단에 방출 요청을 했던 임창용은 컵스의 언질을 받고 나서 곧바로 짐을 쌌다.

임창용은 25일 오후 늦게 한국으로 들어왔고, 다음날 곧바로 삼성과 입단 협상에 나섰다. 임창용은 "마침내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전력을 다해 팀을 위해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월요일 야구 부활

우천취소 경기 편성…KIA, 마운드 불안에 '부담백배'

월요일은 야구 없는 날? 올 시즌에는 월요일도 야구 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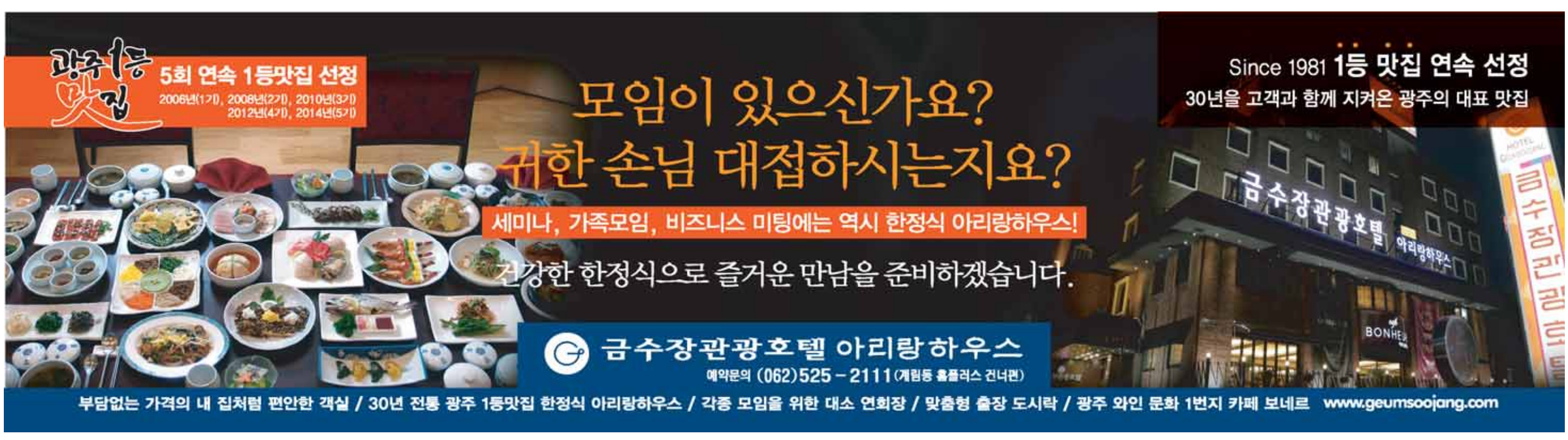
2014시즌 변화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월요일 편성이다. 시즌 중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려 일정이 빠듯한 탓에 주말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토록 한 것이다. 휴식일 변수와 함께 월요일 경기 변수도 등장했다. 각 구단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월요일 경기. 그 변수가 당장 개막과 함께 작용할 수도 있어서 전전긍긍이다.

프로야구는 3월29일 개막전과 함께 대단원에 막을 올린다. 문제는 개막전에 비예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로 개막전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개막 첫 월요일부터 경기가 열린다. KIA의 대구 원정길도 길어질 수 있다. 29일 경기가 열리지 못한다면 30·31일 대구에서 경기를 하고 안방으로 돌아와 4월1일 NC와의 홈개막전을 치러야 한다. 이어 두산과의 원정경기를 위해 잠실로 향하면서 8연전을 치르게 된다.

마운드 공백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KIA에게는 부담백배의 일정이다. KIA는 든든하게 선발자리를 지켜줘야 할 김진우가 없는 상태로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경기 도중 종아리 타박상을 입었던 김진우의 회복세가 더디면서 예상보다 마운드 복귀가 늦어질 전망이다. 임준섭·박경태가 선발진에서 시즌을 출발하게 된다. 여기에 송은범은 26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2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불펜의 불쇼도 계속됐다.

김지훈·어센시오만 겨우 삼자범퇴로 이닝을 막는데 그치면서 KIA 마운드는 무려 15실점을 했다. 9회 필의 만루포를 더해 대거 7점을 뽑으며 13-15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무기력한 마운드였다.

마운드 고민을 안고 있는 KIA는 주말 하늘만 올려보게 생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